

## 대전시의회

안녕하세요. 대전시의회 의장 이상래입니다.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품고 힘차게 도약할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모두 가정 내 두루 평안하고 화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는 진정세와 재유행을 반복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초기 유행 때보다 점진적으로 자유로움과 활기를 회복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여러 불편과 답답함 속에서도 성숙한 보건 의식을 바탕으로 질서 정연하게 생활 방역에 동참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와 이태원 참사 등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사고로 인해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부터 교통과 산업, 환경, 치안 등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실질적인 운영·관리·감독의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한편 반가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고 세계지방정부총회(UCLG)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대전-충청권 학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공동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우리 의회는 이에 더욱 힘을 내어 대전시 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대전형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우리 지역의 재도약과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당당히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과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등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가 현실 속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시정은 주권자인 시민의 뜻으로 결정함을 명심하고 필요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도 정교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하여 물가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시민의 고충민원에 늘 귀 기울이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내어 '시민이 행복한 날'들이 매일매일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의 태양을 바라보며

대전시의회 의장 이상래

출처 : 충남일보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6027>)

대덕구의회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목표한 바 다 이루시고 행복하게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지략의 상징인 토끼의 지혜를 빌려 도약의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참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주요국 간 대립을 비롯해 금융긴축의 지속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등의 외부적인 영향이

거셨습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이어져 긴축영향의 본격화에 소비 둔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나라 경제가 위기라며 제2의 IMF가 올 것이라란 어두운 전망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태원 사태 등 각종 재난과 사건 사고로 슬픔이 더욱 커졌던 해였습니다.

하지만, 새해에는 달라야 합니다.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희망을 위한, 발전을 위한 가능성과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시작은 우리부터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답게 우리 대덕구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우선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편부당하지 않고 오직 구민과 지역발전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도록 감시하고 살피겠습니다. 더불어 집행부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칭찬과 격려에 인색하지 않은 채, 협력에 나설 때는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우리 대덕구의회에선 올해 신년화두로 사자성어 ‘물경소사(勿輕小事)’를 선정했습니다.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란 뜻으로, 구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 모두 소중히 여기고, 구민의 대변인이자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나라가 태평하다고 했습니다. 대덕구의원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대덕으로부터 희망의 불씨를 만들겠습니다. 대덕을 넘어, 대전을 넘어, 우리나라가 희망의 물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물러나는 해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대덕구의회 의장 김홍태

출처 : 디트NEWS24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38155>)

## 동구의회 신년사

존경하는 22만 동구민 여러분!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구민 여러분께서 짊어졌을 일상의 무게들은 유난히도 버거웠으리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짙은 어둠 후에 가장 밝은 여명이 찾아오듯,

이제 지난 시간의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또 한번의 찬란한 도전과 목표를 향해 정진할 때가 됐습니다.

웅크린 다리를 쭉 펴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토끼의 모습처럼, 새해에는 모든 난관과 역경을 뛰어넘는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길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2023년의 동구의회는 혼자 가기보다 같이 가고, 빨리 가기보다 올바르게 가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구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새해’가 주는 ‘희망’이라는 선물을 구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그 희망이 빛바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이 동구의 역사에 있어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1년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께서 걸어 나갈 모든 나날들에 동구의회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전 동구의회 의장 박영순

출처 :디트NEWS24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38166>)

서구의회

존경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의정」을 이끌어 가는 서구의회 의장 전명자입니다.

2023년 계묘년 겸은 토끼의 해,

희망찬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계묘년의 겸은색은 인간의 지혜를, 토끼는 풍요와 번창 다산을 뜻하는 것처럼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여유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전문인력 확보 등을 안착시켜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었던 지난해를 발판 삼아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구민의 삶 속에 희망을 안겨드리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서구의회는 희망찬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 1.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전명자

출처 : 디트NEWS24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38152>)

유성구의회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가고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새해에도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구민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으로 새로운 희망을 전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덧 제9대 유성구의회가 출범한지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구민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대속에 출범한 제9대 의회는 강화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에 걸맞은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문역량을 키워왔으며,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넘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않고 구민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민이 주인으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2023년 새해 유성구의회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와 민생안정 정책 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유성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비롯해 현충원 IC 입체화 사업, 대전교도소 이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등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유성의 상징인 온천지구의 관광거점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유성온천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유성구의회 14명의 의원들과 함께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구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반가운 것은 항상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여정에 유성구의회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성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새해 새날을 맞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송봉식

출처 :디트NEWS24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38165>)

## 중구의회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의장 윤양수 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로 구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중구의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구민분들의 주민의 작은 목소리와 의견들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구 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의정활동에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 우리 의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이 2023년에는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달라진 의회의 위상의 걸맞는 견제와 감시, 협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구민 분들의 상심과 어려움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구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구의회에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들의 신뢰와 지지에 감사드리며 중구의원도심이 활성화되고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2023. 1. 1.

증구의회 의장 윤양수

출처 :디트NEWS24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38154>)

참고)

세종시의회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희망찬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세종시의회는 출범 1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들이 의회에 바라고 기대하는 점을 고민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저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과 '자체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건의안'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안건 채택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세종시와 초당적 협력에 합의했고, 국회 분원 설치 규칙 제정 및 의정연수원 설치를 촉구하였습니다. 또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BRT 역세권 및 금강변 수변상가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결정을 견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더 멀리 뛰기 위해 잔뜩 웅크린 토끼의 모습처럼 코로나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의 난국을 빠르게 해쳐 나가 진정한 일상 회복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특히 2023년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원년'으로 우뚝 서길 기대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세종시의 눈부신 도약과 정주 여건 개선 및 문화·복지 수요 충족을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를 공동 유치한 만큼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과 재정 확보 방안 마련 등 향후 준비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필요한 교통 및 체육 인프라 구축과 선수단 편의시설 확보 등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전례 없는 충청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새로운 지방시대의 서막을 열겠습니다.

선언에만 그치지 않은 실질적인 변화의 움직임들도 더욱 활발해져야 합니다. 세종시민들을 포함한 충청권 지역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회는 국회 이전 규모를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초당적인 논의가 새해에는 활발하게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국가 균형 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라는 국회 이전 취지에 부합하는 국회 전체 이전 방안과 세종 의정연수원 설치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2027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에 관한 구상과 별도로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대통령 임시 집무공간의 이용 빈도를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무회의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세종 개최 약속 이행이 그 첫걸음입니다.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면 정치·행정 기능의 단계적 이양이 절실합니다. 세종시의회를 비롯해 중앙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무부·여성가족부 및 감사원 세종 이전, 수도권 소재 14개 정부위원회의 이전 등에 관한 논의가 새해에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길 기대합니다.

2022년은 '10·29 참사'로 많은 국민들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낳은 해입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 함께 '안전을 지킨다'는 각오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세종시의회 차원에서도 시민의 안전 및 보건 환경과 관련된 시 정책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본예산에 반영된 각종 안전 및 보건 사업들이 적시에 제 효과를 내고 있는지도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밑거름 삼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깊이 있게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본분을 잊지 않고 새해에는 시민들께서 흡족해할 수 있는 의정 성과들을 내는 데 더욱 주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들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성실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출처 : 굿모닝충청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164>)

## 충남도의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여러분! 2023년 계묘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바라며,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새로운 희망과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출범한 제12대 의회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흔여덟 명의 도의원들은 약속드린 ‘소통의정, 선진의정, 책임의정’구현에 적극 노력하였고,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실현을 위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원년, 권한이 커진 만큼 역량 강화에 더욱 중점을 두었고, 정책지원관을 선발·배치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축한 입법평가 시스템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회기와 비회기를 가리지 않고 혁신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쳤음을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국내외 금융 불안 심화, 고물가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이 가속화 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혜를 모아 민생을 살피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단단히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의회는 2023년 충청남도와 함께 탄소중립 경제 실현, 미래 산업 구조로의 전환,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민생경제 활성화 등 충청남도의 새로운 성장모델이 도민의 공감대를 얻고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지방행정이 전문화, 다양화 되고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의 한 해 예산규모가 14조 원을 넘어서면서 의정활동의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민생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도민의 삶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 것이며,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충남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출범 2년차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고단한 삶의 짐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도의회가 중심을 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며,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충청남도의회 의장 조길연

출처 : 브레이크뉴스  
(<https://www.breaknews.com/941453>)

충북도의회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 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과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도 참으로 다사다난 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위협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란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35명의 의원으로 출범한 제12대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정책·입법 분야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강화된 역량과 전문성을 보여주었고 보다 책임 있는 의회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또한 70년 만에 '의회 독립청사 건립'의 첫 삽을 뜨게 되어 유일하게 독립청사가 없는 도시 충북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계 속의 충북으로 도약하게 될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충청북도의회가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성숙한 도민 의식으로 뜻과 의지를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제12대 충청북도의회가 출범한지 2년 차로, 실질적인 여정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충청북도의회는 도민 행복과 충북번영을 위해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민생을 촘촘히 보듬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국제정세 불안 및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위축 등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그 어느 해 보다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후불제 시행 등 의료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시대, 아이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과 장애인의 권리 확보 및 어르신들의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충청북도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길에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규제로 인해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충북의 권리 회복을 위한 「중부내륙발전지역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AI영재고 설립과 충북의 미래산업 발굴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충북 발전을 위한 일에 충청북도의회가 든든한 협력자가 되겠습니다.

셋째, 선진적인 의정활동으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갈수록 행정은 전문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의회의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의원 정책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기회 확대와 함께 의원 연구모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전문인력 보강을 통해 의정보좌 역량을 강화하고, 충청북도의회가 자율성과 전문성, 책임감을 갖춘 지방자치의 모범적인 미래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위기는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올 한 해 그 힘과 지혜를 모아 충북 번영과 도민 행복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일

충청북도의회 의장 황영호

출처 : 굿모닝충청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134>)